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Monthly Newsletter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에서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매월 정리해서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Contents

-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 II. 주요 규제 동향
- III. 국내외 뉴스
- IV. 주요 행사

본 자료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본문에서 우측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자료 다운로드 또는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Deloitte Korea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이동)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Board Practices Quarterly 8월호, Future of tech : 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의 미래: 인공지능 (AI)

- ▶ 기업은 효율성 제고, 경쟁우위 확보 및 고객·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음
- ▶ AI에 관한 탐색과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윤리, 규정 준수, 규제 프로세스와 같은 사업적 영향을 고려해야 함
- ▶ 기업 거버넌스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기업 규모별 AI에 대한 조직 내 역할, 규정 및 프레임워크, 리스크 완화 조치, 교육·훈련 및 이사회 감독에 대한 서베이를 실시함
 - *글로벌 97개 기업의 사내 거버넌스 전문가 및 이사회 사무국 인원
- ▶ 주요 서베이 결과

다운로드



QR 코드



Q1. 귀사는 현재 어느 영역에 인공지능(AI)의 사용을 집중하거나 고려하고 있는가?

- 대형 상장법인은 영업/마케팅(55%), 제품 개발(48%), 법률(42%) 순으로 나타남
- 중형 상장법인은 모름/해당없음(48%), 영업/마케팅(33%), 제품 개발(30%) 순으로 응답함

Q2. 귀사의 인공지능(AI)에 대한 주요 감독 책임은 이사회 내 어느 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가?

- 대형 상장법인의 25%, 중형 상장법인의 38%는 이사회 및 위원회의 명시적인 책임이 없다고 응답함
- 대형 상장법인의 19%, 중형 상장법인의 22%는 아직 이사회 수준에서 AI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Q3. 귀사는 인공지능(AI) 사용에 있어 규정이나 행동 강령이 존재하는가?

- 대형 상장법인의 17%, 중형 상장법인의 46%는 관련 규정이나 행동강령이 없다고 응답함

Q4. 귀사는 인공지능(AI) 사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리스크 관리 등의 규정을 개정하였는가?

- 대형 상장법인의 18%, 중형 상장법인의 50%는 개정 이력이 없다고 응답함
- 대형 상장법인의 57%, 중형 상장법인의 29%는 현재 개정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남

Q5. 귀사는 인공지능(AI)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가?

- 전체 상장법인의 52%는 임직원/이사회 교육·훈련이 부재하며, 11%는 임직원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6%는 이사회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On the board's agenda 7월호

경영진 보수 결정에 대한 이사회와 복합적 역할

- ▶ CEO와 최고경영진의 보수는 회사의 주주, 직원, 언론 및 정부 규제 기관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주제이며 보수 거버넌스의 복잡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 경영진 보수는 기본급, 복리후생, 단기(일반적으로 연간) 성과에 연동된 보너스 제도, 경영진의 이익을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일치시키는 장기 인센티브 등 네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세부사항은 직책, 산업분야, 지역 및 기업 문화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 이사회와 보수위원회는 서로 다른 성과측정 기준 기간 (장기 VS 단기)을 가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 보수를 결정 할 수 있어야 함

다운로드

QR 코드

<표1> 경영진 보수 고려 시 이사회 논의를 위한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문항

- 회사의 전반적인 전략과 개별 보수 지표 간에 명확한 연계성이 있습니까?
지표가 개별적으로나 총체적으로 전체 전략 목표와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 회사의 경영진 보수 철학과 실행계획은 경쟁력 유지, 리스크 관리 및 장기적인 전략 목표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습니까?
- 경영진 보수 계획에 스튜어드십, DEI, ESG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지표들은 현재 회사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잘 반영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 이사회나 위원회는 경영진 보수에 대해 내부 및 외부 형평성을 분석하였습니까?
이러한 형평성 평가결과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해야 합니까? (또는 공유할 수 있습니까?)
- 어떤 상황에서 이사회나 보수위원회는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에 따라 보수 전략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까? (또는 업데이트해야 합니까?)
- 경영진은 보수 지표를 설정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까? 현재 프로세스는 이사회와 경영진 간의 가치의 일치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참여를 허용합니까?



II. 주요 규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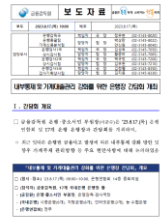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8.17 (수) 금융감독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 개최

- ▶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 부원장은 '23.8.17(목) 은행 연합회 및 17개 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함
- ▶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운영

다운로드



QR 코드



구분	내용
은행권 자체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전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은행장 주관으로 직접 종합 점검 실시 요청 (은행장 확인서명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통제시스템이 일선 영업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이사회와 경영진의 일관성 있는 역할과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 - 점검항목: ①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②최근 사고 관련 유사 사례 점검 ③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등(8.31까지 제출) • 금감원은 자체 점검결과를 제출받아 재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신속한 개선 및 보완을 지도할 예정
건전·건강한 지배구조 및 조직문화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KPI) 개선,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관용없는 조치 등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 유인체계 마련 노력 요청
금융감독원 감독·검사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예방을 위한 감독 검사 기능을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한편 금융사고에 책임있는 은행 임직원에게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점 및 영업점 현물(시재) 검사 확대, 자체점검 결과의 교차검증 및 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 경영실태평가지 내부통제 평가 비중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

- ▶ 참석한 은행장들은 내부통제체계 강화와 관련하여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에 공감하며, 은행차원의 관리강화와 함께 내부통제 자체 종합점검에 적극 협조할 예정임을 언급함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8.14 (월) 금융감독원

新 XBRL 재무공시 시스템 시범가동

▶ XBRL 재무공시 확대 시행* 전, 제출인이 XBRL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제출해보고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도록 XBRL 재무공시 시스템을 시범가동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제출인을 지원할 예정임

* 본문(금융사, 주요 비상장사) : 23년도 3분기 보고서(23년.11월 ~), 주석(자산총액 2조원 이상 비금융업종 상장사) : 23년도 사업보고서(24년.3월)~

구분	내용
모집대상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 희망 기업은 소속 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신청(금융사) 제출인 소속 금융협회*를 통해 모집(상장·비상장 금융사)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상장사) 소속 협회(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를 통해 모집하되, 재무제표 주석 대상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비금융업종)로 한정 (기타 비상장사) 소속 협회가 없는 비상장법인(비금융업종, 사업보고서 제출 & IFRS 적용 한정)은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한국XBRL 본부 통해 모집
시행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사, 비상장사(본문) 및 상장사(주석)로 구분하여 시행시기를 각각 운영 (금융사·비상장사)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23.8.14.) 이후부터 9월까지 재무제표 본문 작성 및 제출 점검 (비금융업 상장사)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23.8.14.) 이후부터 12월까지 재무제표 본문·주석 작성 및 제출 점검
운영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 기업은 기 제출 재무제표를 참고하여 XBRL 재무제표를 작성·제출하고, 유관기관은 제출된 XBRL 재무제표를 점검하여 피드백을 제공하고 금융감독원과 주요 이슈사항 등 협의 제출인(필요시 회계법인과 협력)이 XBRL 재무제표 본문 및 주석(상장사) 작성 작성된 XBRL 파일을 사업보고서 등에 포함하여 제출 유관기관은 소속 제출인에게 재무제표 작성 관련 리뷰 등 피드백 제공 금융감독원은 발견되는 주요이슈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협의, 기술지원 등 제공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XBRL 재무공시 확대 시행으로 XBRL 재무제표를 처음 작성하는 제출인에게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제출인의 재무공시 역량을 제고 시범가동 중 제출인 등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안정적인 XBRL 시스템 운영 및 제출인 편의성 향상 기대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8.9 (수)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증권업무 대행은행 직원들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Fast-track) 로 검찰에 통보함
 - 해당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상당수는 상장법인의 무상증자 업무 중에 지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주식거래를 함
 - 해당 정보를 타 부서 직원 및 가족, 지인 등에 전달하여 매매에 이용하게 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됨
- ▶ 금융위와 금감원은 조사 초기 현장조사 및 포렌식을 실시하여 중요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매매분석 및 금융계좌 추적 등을 실시함

다운로드



QR 코드



구분	내용
조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1월 ~23.4월 기간 중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 지득하여 총 매매이득 127억원 상당을 취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종목 주식 매수,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 상승 시 대상주식 매도를 통한 차익 실현 방식으로 매매 이득 취득 - 일부는 은행 내 타 부서 직원, 가족친지, 지인에게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하여 매매 이득을 취득하게 함 • 증권업무 대행업무를 하는 은행 소속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당국은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방지와 관련된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 여부도 점검함 - 증권대행부서 내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관리 등에서 미흡점이 발견되어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향후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해 책임 여부를 명백화 예정 <p>* 고객사와 상담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취득 최소화, 증권대행부서 내 직원간 불필요한 미공개정보 전파 최소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사전·사후 통제 강화 등</p>

- ▶ 양 기관의 권한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고, 금융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임
 - 증권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사에 대해 임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고,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시 해당 금융사에 대해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임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8.3 (수)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공시정보 DB 구축' 추진

- ▶ 금융감독원은 23.4월부터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자산운용사* 등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포함,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함

* 주식형 펀드 운용규모, 의결권 행사 업무 전담조직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7개사 선정

- ▶ 의결권 행사 공시정보의 DB 구축 추진 - 중간논의 결과

구분	주요 내용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공시관리체계는 협회와 거래소로 이원화되어 있고, 양자 간 공시 대상, 범위 및 기간 등이 상이하여 의결권 행사 내역의 분석이 어려움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시 중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투자자도 운용사별 행사내역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정보를 체계화 할 예정 ① (공시서식 표준화) 의안유형 구분 신설, 공시기재 기준 보완 등 공시서식 작성기준을 보완하고, 이를 토대로 협회 및 거래소 공시서식을 표준화 ② (공시채널 기능 강화) 현행 운용사별 일괄 공시내역 뿐 아니라 의안유형, 종목 등 다양한 조건으로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정보의 검색이 가능토록 기능 강화 ③ (협회와 거래소 정보 연동) - 협회(펀드 기준)와 거래소(운용사 기준)의 공시정보를 상호 연동하여 공시정보의 다각적 분석이 용이하게 함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용사별 공시정보의 비교가능성과 정보 활용도를 제고하여 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 향후 추진계획

구분	내용
공시서식 표준화 및 공시정보 DB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결권 관련 공시서식(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협회와 거래소 공시서식을 표준화하여 '24년 주총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기타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결권 가이드라인 개정 등 기타 제도개선 방안은 계속 논의 중이며, T/F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임

다운로드



QR 코드

QR 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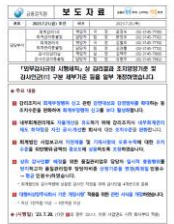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7.21(금)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규정시행세척'상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및 감사인군 구분 세부기준 등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운로드



QR 코드



▶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23.5.2.) 사항을 반영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척' 상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및 감사인군(群) 구분 세부기준 등을 일부 개정함('23.7.20. 시행)

※ 다만,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관련 별지 서식은 '23.1.1. 이후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

▶ 주요 개정내용

1. 감리조치시 회계부정행위 신고·고지자에 대한 조치수준 완화

- 감리조치 감경 또는 면제대상자에 부정행위를 증선위에 신고한 자 이외에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자를 추가
- 부정행위 신고·고지자에 대한 감리조치 감경시 신고자 등이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단계까지 감경 가능
 - * ❶ 주도적 역할 등 하지 않을 것, ❷ 증선위 등이 정보보수 또는 충분한 증거 확보 전 신고 등을 할 것, ❸ 증거제공 및 조사완료시까지 협조할 것(외부감사법 시행령§32①1호 각목)
-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감리조치시 검찰고발·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음

2.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자진공시·개선 회사에 대한 조치수준 완화

-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감리 실시 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는 감리조치시 가중사유에서 제외

3.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등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 조정

- 사업보고서지연제출에 대한 조치수준을 1단계 하향하고, 3일내 자체 시정하면 1단계 감경
- 사업보고서 오류·누락사항 관련 금액의 중요도에 따라 조치수준 차등화
- 사업보고서 또는 수시보고서에 서로 다른 유형의 위반사항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하는 규정을 신설

4. 감사인지정 관련 감사인군(群) 구분 세부기준 조정

- 감사인군 구분을 위한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비중을 산정대상기간 매월 초일 품질관리 전담인력의 평균 인원수로 계산하도록 개정

5.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기준 개정사항 적용을 위한 관련 서식 개정

- 상향된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기준*을 감사인지정 기초자료신고서 등 별지 서식에 반영

* (기준) 자산 1천억원 이상 → (변경) 자산 5천억원 이상

※ 다만 ❶ 사업보고서제출회사, ❷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자산 1천억원 이상

III. 국내외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 우등생 맞아? 지배구조 취약 기업 수두룩한 코스닥 글로벌 [비즈워치 PICK]
- 국민 하나은행 영업력 압도.. 차기 지배구조에 영향 미치나 [MTN]
- 계속된 공기업 임원 먹튀 논란 '지배구조 바꿔야' [KNN]
- 윤리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ESG 경영 실천 [프라임 경제]
- 뜨거운 감자 된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향후 쟁점은? [시사저널E]
- 소유분산기업 지배구조 개선 움직임에 주춤 앞둔 KT 촉각 [뉴스1]
- 은행 지배구조 TF 2차 회의... CEO 선출 방식 선진화 추진 [조선비즈]
- 리딩뱅크 구축한 하나금융 지주, 지배구조 내부규범 손질한 이유 [에너지경제신문]



이사회·감사위원회

- 제약 바이오 업계, ESG 경영보고서 연이어 발간 [여성소비자신문]
- 커지는 ESG 공시 시장, 인증은 누가 맡을까? [뉴시스PICK]
- 국내 ESG 평가기관 아직 수준 미달, 금융 부문별 특성 반영 없어 [한스경제]
- 100% 男 이사회' 법으로 막았더니... 코스피200 기업 감사위원 여풍 [뉴스1]
- BI 통일하고 이사회까지 입성, 크림의 티켓 리셀 본격화? [아시아투데이]
- 변화 기로 KT, 물갈이 예고 [뉴데일리 경제]
- 팬오션 사외이사 전원 '반대'한 안건은 [연합 인포맥스]
-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혁신위원회 설치... 건전성 지도 및 관리 [조선비즈]



한국 딜로이트 그룹

- 한국 딜로이트그룹, 연경흠 이사 '글로벌 해상운송 무탄소 연료 이행 불가피' [철강금속신문]
-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 '쿨 코리아 챌린지' 동참 [매일경제]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 지배구조 데이터 동향' 창간호 발간 [헤럴드경제]
- 한국 딜로이트 그룹, 'ISSB 공시 기준의 내용과 우리의 대응 웨비나' 개최 [이투데이]
- 딜로이트 안진, ESG 공시 인증 연구 TF 발족 [조세일보]
- 연세대 상남경영원,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CSO Innovation Program' 개설 [한국대학신문]
- 한국 딜로이트 그룹, 인공지능 활용서 : '6대 산업별 활용사례' 발표 [CIO KOREA]
- 딜로이트, 'AI, 생산 비용 절감, 고객 수요 예측에 기여' [한겨레신문]
- 한국 딜로이트 그룹, 'AI, 다양한 산업군에 긍정적 변화' [매드타임즈]

III. 국내외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회계투명성

- 기업 73% '신외감법 시행이 회계투명성 개선에 도움' [조선비즈]
- 고용장관, 유튜브를 통해 노조 회계투명성 기업 임금체불 등 설명 [메트로신문]
- 금감원, 감리조치 조건 완화 '회계투명성 증대' [메트로신문]
- 서울시, 노동단체 보조금 관리 강화 조례 공포 [연합뉴스]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유예 신청' 다음달 접수 [노컷뉴스]
- IFRS17 적용 시 보험사가 직접 CSM 산정해야 [한국경제]



부정행위방지

- 공기관 비위 척결, 강력한 내부통제 필요... 감사역량 높여야 [뉴시스]
- 지점장급 내부통제 전담 영업현장 배치 [네이버뉴스]
- 경남은행 PF 직원이 500억대 횡령... 금감원 긴급검사 착수 [조선일보]
- 금감원, 증권사 CFD 업무 전반서 위법, 부정행위 다수 적발 [브릿지경제]
- 금감원,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 한다... 감면대상 감경범위 확대 [세정일보]
- 분식회계, 사적유용 공익법인, 3년간 국세정 '개별검증' 받는다 [한국세정신문]



규제 동향

- IFRS 17 가이드라인, 회계제도변경 아니지만 올해엔 소급적용 가능 [한국경제TV]
- ISSB 기준, ESG 공시를 회계 영역으로.. '재무제표 영향 화폐화해야 [ESG 경제]
- 보험은 IFRS17, K-ICS에 난리인데.. 공제는 '무풍지대' [비즈워치]
- 김한규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토큰포스트]



M&A

- 빙하기 온 스타트업 투자시장, 활로로 떠오른 M&A [이코노미스트]
- 보험권 M&A 논의 활발하지만 열악한 재무 건정성 발목잡나 [아주경제]
- 올 CMO M&A 저조해도 전망은 밝아 [의학신문]
- 높은 시장 변동성에 M&A 몸 사리는 제약바이오 [뉴스핌]
- M&A 시장 휩쓰는 헤지펀드 [매일경제]
- M&A 허들 낮추는 정부, 얼어붙은 투자 시장 활기 돌까 [메디컬타임즈]
- 엔저로 해외 기업 사기 어렵다.. 대기업끼리 M&A 80% 증가 [연합인포맥스]
- 동화약품 첫 아웃바운드 M&A, 해외 진출 교두보 될까 [히트뉴스]
- 8배 커진 일본 M&A 시장, 기회 엿보는 韓 사모펀드 [서울경제]

IV. 주요 행사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창간호 발간

-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이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7월 31일, 국내 KOSPI 200 기업의 이사회 관련 현황 정보 분석 결과를 담은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창간호를 발간함
- ▶ 본고는 FY2021과 FY2022간 KOSPI 200 기업의 이사회와 관련한 공시 정보를 분석한 결과 및 상반기에 주목할 주요 규제 동향을 수록함
-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은 "국내 KOSPI 200 기업의 이사회와 관련한 공시 정보항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센터 고유의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향후에도 국내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현황을 먼저 짚어보고 추후 기업지배기구의 발전방향을 논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둘 것"이라고 밝힘

다운로드



카드뉴스

QR 코드



구분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창간호 주요내용
I. 이사회 주요 현황 - KOSPI 200 기업을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사회 구성 ② 이사회 내 위원회 ③ 이사회 안건 ④ 이사회 회의 ⑤ 이사회 성 다양성 ⑥ 사외이사 전문성 ⑦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⑧ 이사회·위원회·개별 사외이사 성과평가 ⑨ 사외이사 보수 ⑩ 사외이사 교육 -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⑪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⑫ 결언
II. 2023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회계제도 보완 방안 마련 - 회계투명성 제고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회계제도 보완 ② 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③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IV. 주요 행사

Upcoming events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웨비나

[웹 세미나] ESG, 기후 및 신뢰: 이사회 역할

구분	상세
일시	2023년 9월 6일 (수) 오후 2:00
장소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Chris Lu (Weibo Corporation, Honma Golf Ltd; 이사회 회원, FIT Hon Teng Ltd 글로벌 COO/CFO) Hina Nagarajan (United Spirits Limited (Diageo India) 전무이사 겸 CEO, Diageo plc 글로벌 집행위원회 회원, BP Plc 이사회 구성원)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주, 규제기관, 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기후와 지속가능성에 점점 더 관심을 가지며 기업은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음 이사회가 고객, 주주, 직원 및 더 넓은 대중 사이에서 신뢰를 강화하면서 조직의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고자 함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저명한 리더 패널과 함께 이사회에서 의미있는 ESG, 기후 및 신뢰 의제를 수립하기 위해 주요 이사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배운 교훈을 살펴볼 것임

신청하기

QR 코드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웨비나

[웹 세미나] 기후 변화의 과제 : 이사회 의장의 역할

구분	상세
일시	2023년 9월 13일 (수) 오전 12:00
장소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orenzo Bini Smaghi (Société Générale 이사회 의장) Sheila Murray (Teck Resources 이사회 의장) Jennifer Steinmann (Deloitte Global 지속가능성 및 기후 리더) Sharon Thorne (Deloitte Global 前 이사회 의장)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와 기타 ESG 고려사항이 기업들의 주요 의사결정 의제로 등장하고 있음. 이에 이사회 의장의 기후 관련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려해야 함 이해관계자, 주주, 규제기관에게 회사가 탄소 배출량 감소에 헌신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여줄지에 대해 논의 예정 이사회 의장으로서 변화에 필요한 투자와 단기적인 실적 압력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지에 대한 답변이 제공될 예정임

신청하기

QR 코드



IV. 주요 행사

Upcoming events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웨비나

[웹 세미나] Talent Frontier: 이사회가 인력의 미래를 형성하는 방법

- ▶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은 글로벌 서베이를 통해 글로벌 권역의 이사회가 직무 현장에서 '인재와 인력'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를 사외이사, 감사위원 및 감사, C레벨 경영진을 대상으로 조사함
- ▶ 현재 이사회 아젠다에서 중요한 주제인 '인재와 인력에 관한 이사회 역할'에 통찰력을 제공함
- ▶ 상기 서베이의 결과는 '23년 10월 17일 웨비나를 통해 공유되며, 보고서는 이어 발간될 예정임

신청하기

QR 코드



구분	상세
일시	2023년 10월 18일 (수) 오전 12:00
장소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orenzo Bini Smaghi (Société Générale 이사회 의장) • Sheila Murray (Teck Resources 이사회 의장)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의 미래는 신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광범위한 인구통계학적 변화, 직원의 예상 기대 사항, 비용 통제 및 생산성 향상에 대한 압박 등 변화의 힘에 노출되어 있음 •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산업 및 권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변화에 따라 임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달라지며, 기업을 리드하는 이사회는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함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조용한 퇴사와 대량 퇴사와 같은 최근 회사에서 부각되고 있는 인력 이슈에 대한 대응과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토론 예정

IV. 주요 행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온라인 교육 (국/영/중문)

구분	상세
일시	상시
장소	온라인 시청
개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의의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3.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자의 역할, 책임 4. 제도도입으로 인한 지배기업의 영향 5. 제도도입으로 인한 종속기업의 영향 6.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임직원 및 감사(위원회)를 위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동영상을 함께 제작하여 공개함 • 감사수준으로 강화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자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3년에 대비하여 기업의 성공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 추진된 사항임

동영상 보기

QR 코드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ntact



김한석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Leader
hansukim@deloitte.com



정현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hyunjeong@deloitte.com



김학범 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hbkim@deloitte.com



오정훈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junoh@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